

# 인천 119스토리

2019 SPRING Vol.2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뉴스

국가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소방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 똑똑똑

소방공무원도  
인턴과정이 있다?  
인천소방학교!

## 미디어체크

영화 '반창꼬' 속  
안전체크!

표지모델 이은결

ISSN : 2635-6546



인천소방본부

# Contents

SPRING 2019 vol.02



**발행인** 인천소방본부장 김영중  
**발행일** 2019년 4월 18일  
**발행처**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90  
**전화** 032) 870-3075  
**홈페이지** <http://new119.incheon.go.kr/>  
**ISSN** 2671-5333  
**기획편집** 김성남, 이경철, 강성은, 변태우  
**번역검수** 최병기

**디자인·기획·편집** (주)착한넷  
070-7092-0999 <https://chakan.net>

- 03 [2018년 인천소방의 하루](#)
- 04 [안전뉴스](#)
  - 강화군 양도면 진강산 화재진압
  - 동일애플러스 화재 진압
  - 국가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소방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 그림에 소방을 담다, 계산119안전센터 새 청사 단장에 나선 소방관
  - 서창119안전센터 개소식 개최
  - 송도소방서, 2018 인천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
- 12 [똑똑똑](#)
  - 소방공무원도 인턴과정이 있다? 인천소방학교!
- 16 [미추홀스토리](#)
  - 소방관 아빠의 육아도전기!
- 18 [미추홀포커스](#)
  -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달리는 소방관
- 20 [그날을 기억하며](#)
  - 구급차에서 만난 새 생명
  - 네 번의 화재, 심장 떨리는 연쇄방화범 찾기
- 22 [에너지충전소](#)
  - 함께해서 더 행복한, 우리는 소방가족!
- 26 [소방도시 인천](#)
  - 옛날 사람들은 화재에 어떻게 대비했을까?
- 28 [어린이119](#)
  - 어린이와 함께하는 소방 행사
- 30 [미디어체크](#)
  - 영화 '반창꼬' 속 안전체크!
- 32 [렛츠소방](#)
  - 불타는 금요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 34 [시민이야기](#)
  - 떡과 편지에 담은 감사의 마음
  - 소방관분들께, 류케이온 시사토론 동아리 공은민 올림
  - 계양소방서에서의 뜨거운 아르바이트
- 38 [함께하는 소방](#)
  - 2019 지역행사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장' 안내
- 39 [칭찬합시다](#)
- 40 [생활 속 소방](#)
  - 우리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 42 [안전카툰](#)
- 43 [에필로그](#)

# 2018년 인천소방의 하루

화재진압  
4.4건

인명구조  
65건

응급이송  
278건

의료상담  
161건



1일 총 508건 → 3분 마다 1건 처리

5시간 마다  
1건 처리

22분 마다  
1건 처리

5분 마다  
1건 처리

9분 마다  
1건 처리

· 대응단계 총 18번 발효 → 3단계 3건 / 2단계 6건 / 1단계 9건



**화재진압** 전년대비 : 화재 0.7% ↑ , 인명 22.7% ↑ , 재산 166.3% ↑

화재발생 : 1,619건 (1,608건)

인명피해 : 119명 (97명) [ 사망 21명, 부상 98명 ]

재산피해 : 39,531백만원 (14,844백만원)

[ 부동산 16,316백만원, 동산 23,215백만원 ]



**구조활동** 전년대비 : 구조건수 7.1% ↑ , 구조인원 1.4% ↑

구조건수 : 23,872건 (22,287건)

구조인원 : 7,102명 (7,007명)



**응급이송** 전년대비 : 이송건수 4.7% ↑ , 이송인원 4.6% ↑

이송건수 : 101,305건 (96,760건)

이송인원 : 103,079명 (98,510명)



**의료상담** 전년대비 : 상담건수 0.8% ↑

상담건수 : 58,695건 (58,221건)

\*( ) - 전년도 건수





강화군 양도면  
진강산

## 화재진압

### 안전뉴스 1. 강화군 양도면 진강산 화재진압

2019년 3월 13일 오후 1시 58분.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의 진강산이 불게 물들었다. 진강산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탄발사기 사격(연습 탄)훈련 중 발생한 이 화재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탓에 빠르게 연소 확대되었고 오후 5시경 주민 2명은 두운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큰 화재였지만 출동대의 빠른 대처에 다음 날인 14일 오전 8시 31분 초기 진압에 성공해 대응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되었고 오전 9시 15분, 진강산의 뜨거웠던 불길은 완전진화되어 대응 1단계 역시 해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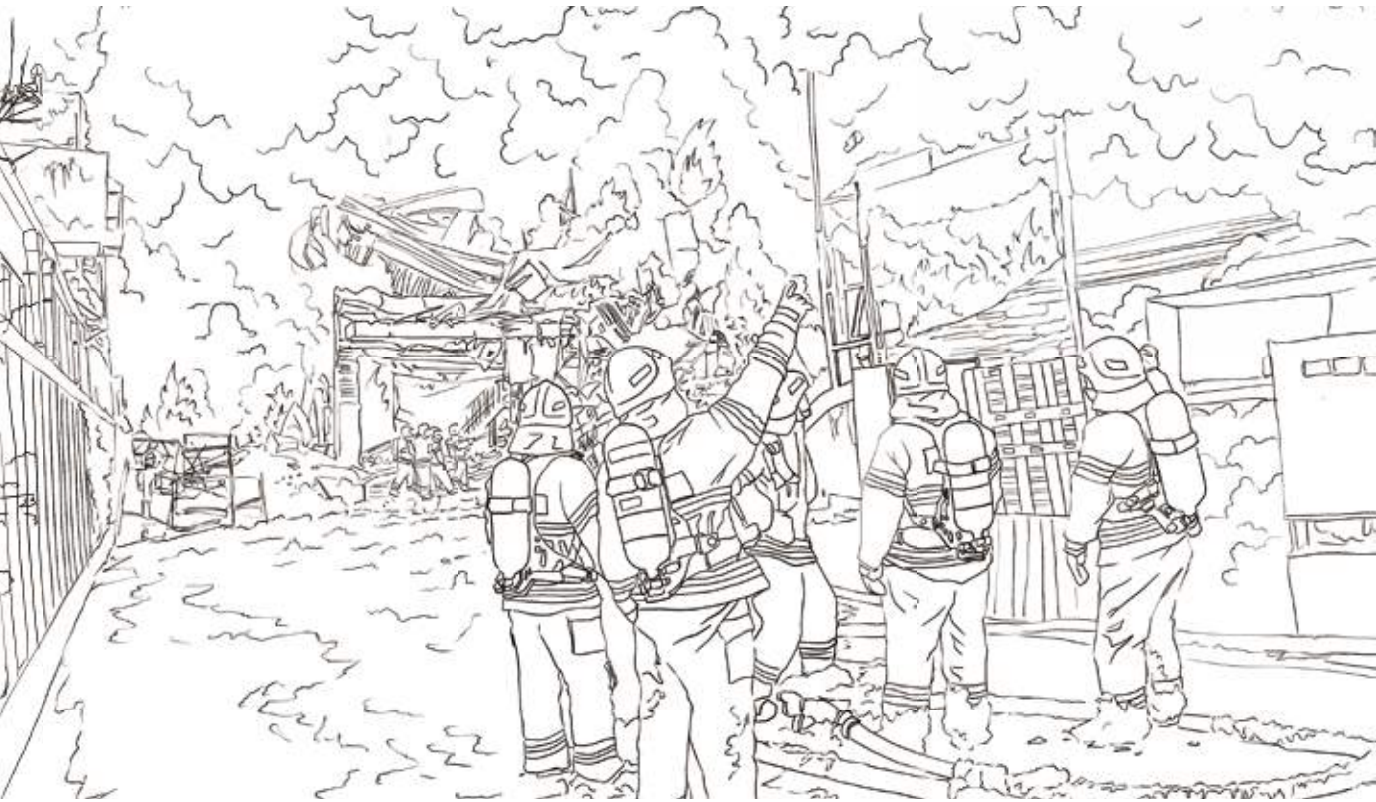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477,460천원 (산립 약 50ha)

다행히 화재현장 주변에 민가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188명의 많은 인원과 13대의 헬기가 동원될 만큼 큰 화재였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후 5시 46분 소방당국은 완전진화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해 야간순찰과 화재대비 지시를 내렸고 민가에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했다. 



동일엔프라스

## 화재진압



### 안전뉴스 2. 동일엔프라스 화재진압

2019년 1월 11일 오후 10시 57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염로의 플라스틱 제조공장  
동일엔프라스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공장동 1층에서 발화하여 인접 공장 7개 업체로 연  
소 확대된 이 대형화재는 최초 신고자의 접수 직후  
인 10시 58분, 곧바로 선착대가 출동해 현장에 도  
착했고 대응 1단계 발령이 내려졌다.

고압방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인천소방본부는  
연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자 오후 11시 20분, 대  
응 1단계에 이어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진화작업

투입 인력과 장비를 늘렸다.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4,849,246천원(부동산 3,303,148천원,  
동산 1,546,098천원)

소방관과 경찰 등 258명의 인력과 79대의 장비를  
동원, 발화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후인 12일 오전  
2시 8분 초진에 성공한 인천소방본부는 2시 50분,  
쉽지 않았던 진화작업 끝에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 국가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소방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인터뷰\_이은결  
글\_김지현  
사진\_김현미, 인천소방본부제공

인천소방본부 7층 대강당에서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렸다. 눈앞에서 화려한 불꽃이 발하고 풍선이 나 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마법 같은 마술 쇼에 아이들은 엉덩이를 들썩였고 어른들은 연신 놀라며 박수를 쳤다. 2월 28일 목요일, '소방가족을 위한 피자마루와 이은결의 드림시어터' 공연이 열린 날이었다. 공연을 마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은 무대 아래에서도 마치 공연을 하는 듯 크고 시원스럽게 웃었다. 소방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본 무대에 올랐다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인천119스토리> 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인천119스토리 봄호 관련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 오늘 인천소방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광고 메인 모델로 인연을 맺었던 피자마루에서 직업 특성상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소방관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제게도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아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평소 소방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공연을 해오다 보니 제 주위에는 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험이 많은 공연팀이라 해도 언제나 공연을 할 땐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저와 공연팀은 무대 위, 공연할 때에만 국한된 비교적 짧은 긴장감이지만 소방관분들은 밤낮없이 광범위한 곳을 주시하며 안전을 도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공연을 하다 보면 헬기를 이용하거나 위험한 마술을 진행하는 일도 있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하는 퍼포먼스엔 헬기가 등장하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불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매 공연마다 안전을 위해 소방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효과가 생각지 못하게 일상에서 가끔 일어나는 사고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무대 위에 서야 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분들도 평소 안전교육을 받고 부디 안전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 KBS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술로 화제가 되셨죠. 이은결 씨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저는 방송을 위한 것이든 공연을 위한 것이든 ‘콘텐츠’는 단순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효과보다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콘텐츠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고 어떻게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제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 다가오는 5월 예술의전당에서 THE ILLUSION 공연을 하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흔히 ‘매직쇼’ 하면 여러 신기한 현상을 나열하는, 즉 ‘마술’을 ‘쇼잉’하는 형식이다 보니 시각적인 자극 위주의 공연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더 일루션’은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일루션’이라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마술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언어로써 주제의식을 표현한,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차별화된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소방관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전’이라는 보호막은 소방관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어갈수록 그만큼 소방관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컸을 거라는 것, 늘 그 점 잊지 않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계산119안전센터

## 새 청사 단장에

## 나선 소방관

그림에  
소방을 담다

3월 23일, 주말임에도 계산119안전센터의 뒷마당은 분주하고 활기찼다. 노란색, 붉은색 물감이 새어 나온 페인트 통과 붓이 어질러진 그곳은 흔히 생각하는 소방서 풍경과 거리가 있었다. 경인교육대 미술교육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민원인 통로의 외벽은 안전정책을 나타낸 귀여운 그림들로 매워져갔고, 청사 뒤편의 마당에선 초대형 판넬 위로 소방관의 시원스런 붓질이 이어졌다. 지난 2월 준공된 계산119안전센터의 새 청사 단장이 한창이었다.

인터뷰이\_계양소방서 소방홍보팀 소방사 이병화

사진\_김지현, 계산119안전센터 제공 글\_김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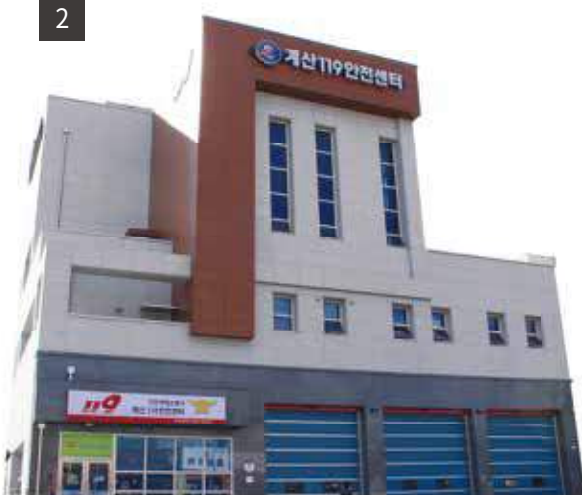


“새 청사 단장의 의미도 담고, 동시에 소방관과 주민들이  
소통,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계산119안전센터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대형 소방관 전시물을 설치하는 ‘소방에 그림을 담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직접 붓을 든 이는 계양소방서 소방홍보팀 이병화 소방사다. 그는 임시로 설치한 철제기구에 올라서서 높이 5.3m 폭 2.2m의 ‘초대형 소방관’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계양구 거리를 내려다보는 그림 속 소방관의 굳게 다문 입술은 담대했고 아이를 안은 팔은 굳건했다. 누가 봐도 전문적 실력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제가 사실 미대를 나왔거든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대학생 때 우연히 본 영화 속 소방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웃음). 이후에 충분히 고민하고 진로를 이쪽으로 잡았는데, 현직 소방관이신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위험하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제 나이 때의 소방 환경은 지금보다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건데, 이 일의 근무환경은 점점 개선되고 있고, 그건 아버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해 바라’하셨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2







- 1 초대형 소방관을 제작 중인 이병화 소방사
- 2 새롭게 준공된 계산119안전센터
- 3 벽화를 그리는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소방관이 됐어요.”

이병화 소방사는 소방관이 되고 나선 다시는 그림을 그릴 일이 없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웬걸, 신입으로 소방서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부터 ‘미대오빠’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선배들의 지지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둘 맡게 되었다. 시민과 소방을 연결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자 현장에서 근무하던 그는 작년 12월, 소방 홍보팀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이번 ‘그림에 소방을 담다’는 홍보팀에 소속한 그가 내건 특수시책 중 하나다. 벽화는 완성까지의 과정이 힘들고 크기가 크다면 더욱 쉽지 않을 걸 알았음에도 그가 현직 대원들과 직접 붓을 들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내보이고, 직원들의 자부심을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소방관 그림 모델은 작전119안전센터 반장님이시고, 그림 아래에 들어가는 문구는 일부러 내부 공모전을 열어서 대원분들이 참여하시도록 했어요. 지나가다가도, ‘아, 저거 내가 생각한 문구다!’ 할 수 있게요. 저희가 스스로 하는 일에 좀 더 자신감

과 확신을 갖고 임하면 그만큼 시민분들도 저희를 믿을 수 있고, 그건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 프로젝트 외에도 인천소방 페이스북에 현직 대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민들은 모르는 소방서 이야기’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벽화제작에 웹툰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게 틀림없는데, 그는 인터뷰 내내 힘 있게 답하고서 밝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인교대 학생들, 의용소방대 대원분들, 구로소방서, 김정기 작가님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보람 있고 감사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며칠 후, 일주일간의 정성스러운 작업 끝에 완성된 초대형 소방관 전시물이 마침내 3층 외경에 자리했다. 안전센터의 외벽 역시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수놓아진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모두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계산119안전센터 청사의 아름다운 외경, 그곳에서 오늘도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을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서창119안전센터

# 개소식 개최

### 안전뉴스 5. 서창 119안전센터 개소식 개최

서창119안전센터 신청사에서 ‘서창119안전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개소식은 2018년 11월 6일 오전 주요 내빈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창 119안전센터는 인천소방본부가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소방서로 연면적982.52㎡(약300평),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25명의 전문 소방인력과 소방차 3대(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를 운용한다.

11월 6일 개소일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던 안전센터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보다 빨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 22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서창119안전센터는 서창2지구 및 장수·운연지역에 주민 밀착형 소방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도 안전센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송도소방서, 2018 인천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


### 안전뉴스 6. 2018 인천시 건축상 우수상 송도소방서 선정

인천시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2018 인천광역시 건축상' 1차 심사에서 선정된 8 작품에 대한 시민관심 투표를 실시했다. '인천광역시 건축상'은 인천만의 특별한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민관심 투표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설문조사 게시판판을 통해 진행되었고 건축상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2018 인천시 건축상' 대상 작품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3점을 선정했다. 그중에서 송도 소방

서는 우수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송도소방서는 공공건축물에서 보기 드문 지상 3층의 중정(마당의 한가운데)과 점토벽돌 마감처리로 화려하진 않지만 간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중정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소방대원들의 휴게 및 출동 공간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한 우수한 건축물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앞으로도 송도소방서가 이런 중정의 공간을 잘 활용하여 직원 간 서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소방공무원도 인턴과정이 있다?

## 인천 소방학교!

뒤~로 돌아! 전방에 우렁찬 함성 3초간 발사~!

우아아아~!!

뒤~로 돌아! 기준!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빠르게 열을 맞추고서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는다. 아주 신속하고 정갈한, 소위 말해 ‘각이 잡힌’ 움직임이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았던 모습 같기도 하고, 군대 신병 훈련소 내 모습 같기도 한 이곳은 어디일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은 합격한 회사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고, 교사가 될 이들은 배정된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인천소방학교’엔 미래의 소방대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

**인터뷰이** 인천소방학교장 직무대리 윤군기 과장

**사진** 김현미, 인천소방학교 제공

**글** 김지현



- 1 인천소방학교 전경 및 훈련시설 1
- 2 인천소방학교 전경 및 훈련시설 2
- 3 인천소방학교 건물 정면
- 4 인천소방학교 훈련사진
- 5 인천소방학교장 직무대리 윤군기 과장

3





4

#### 소방관들의 인턴십, 소방학교란?

2018년 기준, 취업준비생은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35만여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이곳 ‘소방학교’에서 신입 소방공무원 입교식을 치른다. 한마디로 소방학교는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이 정식 소방관이 되기 전 인턴십을 치르는 공간이며 임용 예정인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의무소방대, 소방서 사회복지무원 등을 교육, 훈련, 배출하는 배움의 장이다.

#### 인천소방학교,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기른다

“이론 위주의 강의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강인한 체력훈련을 기본으로 사례별, 상황별 재난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 훈련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학교의 교육방향에 관해 물었을 때, 인천소방학교장 대리 윤군기 과장은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핵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이곳 인천소방학교에 들어선 교육생들은 아주 혹독한 훈련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윤군기 과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인천소방학교의 오전 운동장 광경을 들여다보자면, 이른 아침 스트레칭과 달리기 등으로 몸풀기를 끝낸 학생들은 곧바로 교육준비 및 환경정리를 한다. 날이 맑은 날이면



5

문제가 없지만, 전날 밤, 눈이라도 내린 겨울날이면 널찍한 제설 도구 너가래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수북이 쌓인 눈을 치워내야 한다. 어느 정도 환경정리가 되면 교육생들은 ‘체력 고도화 훈련’이라 불리는 공포의 제자리 달리기, 푸쉬업, 단체 앞았다 일어서기 등을 빠르게 반복한다. “하나, 둘!” 우렁차던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앓는 소리로 바뀌고 헐떡이는 가쁜 숨이 넓은 운동장 위를 가득 메울 때쯤, 누군가 한 명 째름은 다시 무릎을 굽히는 대신 양손을 번쩍 들고 꼭 그렇게 외친다.

## “18기 화이팅~!”

어쩌면 숨이 가빠서 잠시 피를 부리는 외침인지도 모르지만, 듣는 동기들의 고통스럽던 표정에 슬며시 웃음이 스민다.

“기본적인 체력훈련을 거친 학생들은 본격적인 숙달훈련에 돌입합니다.”

실제 불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두꺼운 물 호스를 들고 화재진압훈련을 하고 공중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인명구조훈련을 한다. 구급훈련과 소방차량 운전교육은 수시로 진행되고 쉽 없이 달려 정사까지 도착해야 하는 산악훈련에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화재훈련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매캐한 연기로 공황상태에 빠지는 교육생도 종종 있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치고



힘들, 윤군기 과장의 말대로 ‘실제상황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둔 지옥의 대응역량 강화 훈련’이지만 매 기수 훈련생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여 또다시 외친다. “18기 화이팅~!” 그리곤 모두 함께 12주의 교육과정을 완수하고 비로소 ‘소방관’이 될 배움의 첫 단추를 단단하게 꿰는다.

신임교육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요청했을 때, 윤군기 과장은 지금도 운동장을 내달리고 있을 훈련생들을 보려는지, 창가 쪽에 시선을 잠시 두었다 말을 이었다.

“신임 소방관 여러분!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이들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 주는 ‘시민의 손’입니다. 시민이 소방을 신뢰하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고 발전해나가는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채 끝나기 전에 또 한 번 운동장에선 커다란 훈련 함성





## Mini Interview

###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3주차 교육과정에 있고 9주차가 남은 인천소방학교 제18기 신임 소방공무원 학생장 홍다솜입니다.

### Q 소방학교에서 신임교육을 받고 계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소방관련학과를 나왔는데도 이곳 인천소방학교에 오기 전까진 모르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몸으로 배워가는 과정들이 많은데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되었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이 고되지만 남들이 시켜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 열정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기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18기 학생장이 되기 전에 ‘기억에 남는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동기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까지 우리 18기 모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소방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0개의 소방서로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서로 다독이고 격려했던 오늘들을 가슴에 새기고 어느 곳을 가서든 필요로 하는 소방관이 되자.

18기 화이팅!

미니인터뷰 |

인천소방학교 제18기 신임 소방공무원  
학생장 홍다솜



2

- 1 신임소방공무원 제18기 단체사진
- 2 인천소방학교 훈련사진
- 3 산악구조훈련장
- 4 인천소방학교 제18기 신임 소방공무원 학생장 홍다솜



이 올렸다. 5월 3일, 12주의 교육을 마치고 이곳 인천소방학을 졸업할 18기 훈련생들의 힘찬 목소리는 그 어떤 함성 보다는 열정적이었고, 존경스러웠다.



3

4

## 소방관 아빠의 육아도전기!

오종기&오승현

글\_인천 미추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소방교 오종기



지난 2015년 12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승현이가 태어났다.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내내는 1년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더 쉬고 싶었으나 아직도 휴직을 하는 것에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 병원의 근무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비교적 육아휴직이 쉽게 잘되는 내가 대신 육아휴직을 하게 됐다. 맞벌이 근무의 특성상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군가 붙어서 육아를 해야 하는데 지방에 계신 양가 부모님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나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 승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육아 전쟁터에 참전하게 됐다.

‘승현아, 아빠만 믿어!’

자신만만하던 초보아빠의 높았던 콧대가 꺾어지는 데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매일 붙어있던 엄

마의 빈자리를 찾아 하루 종일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찢찢맸고, 먹으면 토하고 토했으면 오줌 싸고 졸려서 보채고 이거 해서 울고 저거 해서 울고…. 한 달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아들의 울음을 달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며 내게도 요령이 생겼는지 언제부턴가 아이 밥도 제법 잘 먹이고, 울지 않게 놀아도 줄 수 있게 되었다. 승현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시작하자, 아이는 엄마가 없어도 이전처럼 울며 찾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내게도 전쟁 같았던 육아시간이 차차 즐거워졌다.

4개월의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짧아서 금세 아들은 어린이집을 들어가고 나는 현재 복직 후 다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없었다면 아직도 아들과 이렇게 친해지진 못했을 거고 육아

요즘에는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아내의 육아휴직에 이어서  
 육아 전쟁에 투입되는  
 아빠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내가 있었다.



의 힘들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9년 2월에는 둘째가 나온다. 아내의 육아휴직 후 다시 두 번째 육아전쟁 참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 경험을 살려 이번엔 조금 더 숙달된 육아고수의 모습을 보이며 능숙하게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직장 동료도 많다. 대부분 맞벌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입 걱정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제도가 좋아져서 육아휴직을 해도 제법 많은 휴직수당이 나온다고 한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눈에 잔뜩 담으며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나와 승현이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한때가 될 테니.





##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달리는 소방관

인터뷰\_인천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정이국  
글\_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상직

힘든 소방 일과를 소화하면서도 평소에 체력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다. 옥련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 팀장으로 근무 중인 정이국 소방위는 올해 서울 오픈 마라톤을 시작으로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대회 등 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완주했다. ‘안전’의 의미가 각별해지는 요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달리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당연히해야 할 체력단련인데 이렇게 인터뷰하니 좀 쑥스럽네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제가 체력이 아주 쩌뻤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대형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다 탈진한 적이 있었죠.”

그의 마라톤 인생의 첫 시작은 특별하지도 멋있지도 않았다.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기엔 체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계기였다. “체력이 달리니 현장에서 움츠러들게 되고 성격도 소심해지고 그래서 처음엔 도망치듯이 시작했습니다.” 연신 너털웃음을 짓는 얼굴에서 웬지 모르게 여유가 묻어나왔다. 본인이 밝힌 과거 모습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구릿빛의 피부와 다소 날렵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의 체격은 지난 시절을 묻고 싶게 만든다.

“처음에 체력이 쩌뻤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라톤 베테랑이 되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훈련 노하우가 있었나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대답했다.

“처음엔 무작정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고 전문적으로 코칭해 줄 트레이너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개방된 학교 운동장을 무작정 숨이 차 헐떡일 때까지 몇 바퀴 뛰고. 그러다 경비아저씨께 쫓겨나고(웃음). 그러면 그대로 밖으로 나와 인도로도 막 뛰고 그랬죠. 교통사고도 몇 번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무작정 뛰다 보니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이후에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에게 호흡법 등을 배우고 자세 수정을 하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의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말재주는 마라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마라톤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그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라톤을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다들 한 번씩은 관심이 생겨 함께 하자고 들 하죠. 그런데 막상 같이 뛰거나 마라톤대회 같은 곳에 나가보면 그다음부터는 손사래를 쳐요. 사서 고생이라고(웃음).” 밝게 웃은 정이국 소방위는 덧붙여 대답했다. “요새는 다이어트에 몰두하는 동료 직원들

과 함께 동네 승기 천에서 달리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뷰 내내 주변 동료들의 함성이 빗발쳤다. 이구동성으로 정 팀장님을 따라가면 10킬로그램 감량은 기본이라며 사무실에 연신 웃음꽃이 만발했다. 자칫 힘들고 삭막할 수도 있었을 직장 분위기를 이토록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마라톤. 마라톤은 그의 삶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마라톤은 가족, 소방이라는 직장과 함께 저의 모든 것입니다.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했었죠. 내가 좀 더 체력이 강인했더라면, 내가 좀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그런데 슬럼프에 굴복하고 무너지기엔 사명감이란 게 절 붙잡더라고요. 그 후 괴로운 잡념을 떨치기 위해 부지런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마라톤이 없었더라면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마라톤’. 하나의 돌파구로서 시작된 ‘달리는 행위’는 어느새 그의 인생에 빠져서는 안될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을 안겨주었다. 건강과 업에 대한 자신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그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다.

“제가 좋아하는 마라톤이 강한 체력을 만들어주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관으로서, 또한 달리는 사람으로서 어느 하나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해 나가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정이국 소방관. 그의 당당한 질주를 응원하고 싶다.



# 구급차에서 만난 새 생명

글\_영종소방서119구급대 지방소방사 김소빈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5월 임용된 새내기 소방사 김소빈입니다. 소방사 제복을 부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일에 임하고부터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작년 겨울, 제게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1월 3일 새벽 4시 50분경 출동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출동~! 구급출동~!”


분만진통 탓에 다급함이 느껴지는 만삭 산모의 신고전화였습니다. 그간 많은 구급출동을 해보았고 응급분만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했지만 실제 응급분만 출동을 한 적은 없었기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산모님은 극심한 통증에 괴로워했고 진통이 3분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산모님을 구급차 내로 이송한 채 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내달렸고 저와 구급대원들은 산모님에게 라마즈호흡을 유도하며 아기의 머리가 보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얼마 후 세상 밖으로 이제 막 오트려 하는 작은 얼

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아기의 머리가 보인다며 산모님을 격려했고, 두 번째 출산이었던 산모님은 저희의 유도대로 잘 따라 침착히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던 아기는 엄마를 빨리 보고 싶었던 모양인지 병원에 도착하기 전, 마침내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구급차 안을 가득 메운 건강한 울음소리에 함께 분만을 돕던 반장님들도 그제야 잔뜩 긴장해 있던 몸에 힘을 풀고서 눈물이 날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새 생명의 모습은 정말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빛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우는 갓난아이를 산모님께 안겨드렸을 때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구급대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바쁘게 돌아가는 소방활동과 출동에 지쳐있던 마음에 한줄기 단비가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항상 이 순간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불현듯 그 아기의 안부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 네 번의 화재, 심장떨리는 연쇄방화범 찾기

글\_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류재운


2005년 가을이었다. 그때 나는 남동소방서에서 근무하며 화재조사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화재출동, 화재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출동’이란 단어는 긴장감과 긴박함을 준다.

단순한 화재출동인 줄 알았던 현장출동은 두 번째 화재로 이어지면서 연쇄 방화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화재현장에 도착한 나는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연쇄 방화의 실마리를 잡으려 노력했다. 인근 주민이 ‘키가 크고 푸른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본 것 같다’며 방화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얘기해 주었다.

연쇄 방화는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에 이르렀고... 네 번째 화재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범인을 잡을 단서를 얻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저 멀리서 흰 칠한 키에 파란 점퍼 입은 한 청년이 걸어왔다. ‘키가 크고 푸른색 점퍼를 입은 사람’. 아직 범인으로 확정할 순 없지만 인근 주민의 증언과 일치하는 인상착의였다.

### 심장이 두근두근...

당시 주변에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 없었기에 긴장되었지만, 그냥 다짜고짜 “혹시 키 크고 파란 점퍼 입은 사람 못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 갑자기 정색하며 “난 아니에요!”라는 거다. 이전에 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못 봤어요.”, “몰라요.”라고 답했는데 이 사람은 “난 아니에요.”란다... 나는 그 사람을 경찰에 넘겼다. 20대 후반의 방화범은 CCTV분석을 통해서 경찰에 본인이 방화범임을 자백하고 구속되었다.

그해 겨울 서장님께 유공 표창을 받고 뿌듯한 한 해를 보냈지만,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다가가 정면돌파한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 서늘해지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 가끔 ‘지금 다시 화재조사 업무로 연쇄 방화 현장에 있게 된다면?’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때 만큼 젊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벌렁거리는 가슴으로 방화범을 찾아 나설 것이다. 두렵고 떨리지만 또다시 나설 거다. 소방관으로 지내온 긴 세월동안 나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생겼다. 

함께해서  
더 행복한, **우리는**  
**소방가족!**

“  
지금까지 이런 가족은 없었다!  
한 지붕 아래 4명의 소방관!  
400% 안전한 소방가족의 특별한 여행  
”





인터뷰이\_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김남석 소방령    강화119안전센터 김선형 소방사    광명소방서 김경재 소방교    광명소방서 표지숙 소방사

### 소방 대가족의 탄생

인천 강화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경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형 소방사는 아버지(김남석 소방령)와 남동생(김경재 소방교)이 모두 소방관이다. 집안의 어른들 중 소방공무원이신 분들이 많고, 어렸을 때 부터 소방서를 제 집 드나들듯이 했던 터라 어린 두 남매는 크면 당연히 소방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

처음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말을 꺼냈을 때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의 직무가 위험한 상황이 많다보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를 시작한 뒤로 누구보다 응원해주셨고, 시험에 떨어질 때

마다 ‘네가 최고’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몇 번의 낙방 끝에 합격을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부모님의 믿음과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 김선형 소방사

●●

동생인 김경재 소방교는 ‘1년에 한 번씩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며 ‘작년에는 누나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올해는 지숙이가 저희 식구가 된 것이 그렇다.’며 얼마전 결혼하여 새식구가 된 아내 표지숙 소방사를 소개했다.



●●

저희 집은 가족구성원이 적어서 어릴 때 부터  
형제 자매가 많은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가족을  
얻게 되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 표지숙 소방사

●●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한 지붕 아래 네명의 소방  
관 가족! 게다가 모두 화재, 구조, 구급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한 번씩 '우리 가족들끼리  
소방서를 차려도 되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가족들은 말했다.

작은 소망 큰 행복

보통 가족들이 모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  
면 집과 직장에서 하루종일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방공무원 가족의 경우 그렇  
지 않다. 각기 다른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는데다가

소방관의 직업 특성상 언제 재난·재해가 일어날 지  
몰라 365일 대기하며 근무교대를 하다보니 가족들  
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보기란 하늘의 별따  
기 만큼이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가  
족들에게 더욱 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다  
가왔다.

●●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오니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이에요. 그동안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 김남석 소방령

●●

아버지

(아이들에게)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주어서  
너무 고맙다.

김선형

(남동생에게)사랑꾼인건 알겠는데,  
우리 가족도 많이 사랑해줘~

여동생

저도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후배 소방공무원이  
될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풍경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이신 김남식 소방령은 ‘이번 여행을 계기로 가족들간의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올 해 겨울에는 3박 4일간의 다낭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다. 또한 김선행 소방사는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소방가족으로써 다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동생의 배우자까지 모두 같은 직업을 가지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쉬운 말이 아닌 백퍼센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인 만큼 앞으로 가족들이 같은 꿈,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에 있어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한다.

인천119스토리 여름호에 소개 될 ‘에너지충전소’의 주인공 가족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싶은 소방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문의 [nick119@korea.kr](mailto:nick119@korea.kr)

어머니

모두 항상 몸조심하고  
안!전!

남동생

부모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존경합니다!

올케

서로 많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진짜 가족이 되고싶어요~



# 옛날 사람들은 화재에 어떻게 대비했을까?

구석기시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문명은 크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화재의 위험 또한 시작되어 시시각각 사람들을 위협했다.

지금 같은 발전된 소방설비가 없던 시절, 옛날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글\_김현미  
일러스트\_정유희  
참고\_이기환 기자의 흔적의 역사

## 첫 번째 - 불의 발견이 가져온 인간 생활의 변화

170만년 전의 어느 날,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인간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사나운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보관과 운반이 어려운 불은 인간에게 정착문화를 가져왔고, 토기의 발달 또한 가져왔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불은 인류의 문명을 모두 한 줌의 재로 만들기도 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 미추왕 때에 금성 서문에 화재가 발생해 민가 100여 채가 연소됐고, 진평왕 18년 영흥사에 불이 나 왕이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제했다는 기록 등이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 두 번째 - 옛날 사람들은 화재에 어떻게 대비했을까?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동궁의 한 전각, 신라 제 30대 문무왕은 신하들과 함께 완성된 통일신라의





기쁨을 나누는 축하연을 베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불이야!” 소리와 함께 전각의 입구에서 불길의 치솟아 올랐다. 음식을 나르던 시녀가 발을 헛디뎈 넘어지면서 화로를 넘어뜨려 전각에 불이 옮겨붙은 것이었다. 전각에 있던 신하들과 시종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 때, 문무왕이 외쳤다. “수로를 열라!”

위 상황은 통일신라시대 경주 동궁의 화재 발생과 진압에 대한 시뮬레이션 상황이다. 오늘날과 달리 소방제도나 소방관도 없고, 최신 소방설비도 갖춰지지 않았던 통일신라시대에 전각의 화재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었을까? 또 문무왕이 언급한 ‘수로’는 무엇일까?

경주 동궁에는 총연장 107m 가량의 너비 29~30cm, 높이 14~15cm의 화강암제 석조수로가 월지 서쪽 건물에서 시작해 아홉 번 직각으로 꺾인 구조로 설치되어있다. 그 중 첫번째와 다섯번째 굴절 구간에는 길이가 각각 165cm, 90cm인 수조형 수로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화강석재를 ‘단면 요(凹)’자로 정교하게 만든 수로의 중간중간에는 물막이판 고정홈이 설치되어있어 물을 흘려보내거나 차단하기 쉽게

되어있다. 앞선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문무왕이 이 방화수로를 이용해 화재진압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초’로 오늘날의 소화전과 그 기능을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이 훌륭한 방화시설은 1975~79년 사이 궁원의 발굴조사가 이뤄질 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낙수처리용 혹은 경관용으로만 여겨져 왔다가 작년 박홍국 위덕대박물관장이 신라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신라학사보’에 발표한 논문 ‘신라 동궁지 석조수로의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 ‘소방시설’로 규정됐다. 이처럼 앞으로도 소방 유물·유적 발굴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가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지길 바란다.

대부분의 생활양식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던 옛날 사람들은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고, 예방과 초기 진압속도를 빨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차원의 소방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금화도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조직이 생겨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인천119스토리 여름호에서 계속되며, 이와 함께 소방도시로서의 인천의 발달사 또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어린이와 함께하는 소방 행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8 어린이 불조심 우수작품  
공모전과 2019년 개최될 어린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안내



## 🏆 2018 어린이 불조심 우수작품 공모전 성료

2018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인천소방본부의 각 서에서는 ‘어린이 불조심 우수작품 공모전’을 시행했다.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 및 안전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본 행사는 포스터, 표어, 상상화, 소방차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공모 분야를 제시해 3주간 많은 어린이 지원자가 참가했다.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잘 알리는 표어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불조심 포스터, 종이와 나무젓가락, 점토 등으로 만든 붉은 구급차와 사다리차 등, 본 행사의 취지에 맞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 🏆 제18회 인천광역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안내

아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의 장, 제 18회 인천광역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17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이어 이번 18회 행사에서도 아이들이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경연대회 신청접수는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받고 있다.

일 정	2019. 06. 04. ~ 2019. 06. 05. (2일간)
장 소	남동소래아트홀
신청접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 🏆 제20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안내

일 정	2019. 09. 24. ~ 2019. 09. 25. (2일간) 13:00~16:00
장 소	충남대 정심화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참 석	2,000여명
출 전 팀	19개 본부 38개팀(유치부 19, 초등부 19)
참가인원	15~30명으로 구성된 합창팀 경연
주최·주관	소방청 / 한국소방안전원



응급의료학 전문의와 함께하는

## 영화 '반창꼬' 속 안전체크 ☒

“사람 구하기 좋~은 날이다!”

한호주(미수), 고수(강일). 멋진 두 배우가 각각 의용대원, 소방관으로 나오는 영화 ‘반창꼬’ 속에는 위기 상황이 수시로 등장한다. 냉동보관실에 갇히고, 목을 맨 이를 발견하는가 하면 붕괴 직전의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활동을 펼친다. 영화 속과 같은 위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지금부터 영화 속 대응법이 최선인지, 아니면 더 좋은 안전대응법이 있는지 노명희 응급의료학 전문의와 함께 ‘안전체크’해보자.

코너\_미디어체크

글\_김지현

검수\_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지도의사 노명희(응급의료학 전문의)

사진\_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 한겨울보다 추운 냉동보관실에 갇혔다!

미수와 강일은 냉동보관실에 갇혀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휴대폰은 먹통. 외부와의 연락수단이 없어 구조 요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미수는 ‘얼어 죽으면 안 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최대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쩔 도리 없이 막연히 구조를 기다리던 창일은 어느새 정신을 잃어가는 미수의 상의를 벗기고 본인 역시 상의를 벗은 후 몸을 밀착해 체온을 나눈다.



몹시 추운 공간에 갇혔을 경우, 갇힌 공간 안을 돌아다니는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좋아요! 추운 공간 안에서 주인공 미수처럼 몸을 최대한 움직이는 것은 체온 유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영화 속 두 사람처럼 옷을 벗고 서로의 맨몸을 부둥켜안고 있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까?

아쉬워요! 로맨틱하긴 하지만 옷을 벗는 것은 체온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옷을 벗으면 체온이 동반 하락하므로 맨몸 대신 옷을 입고 부둥켜안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을 맨 남자,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다!

자괴감에 휩싸여 목을 맨 남성을 발견한 미수. 곧장 달려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남성의 목이 더 죄지 않도록 하반신을 붙들었고 줄을 끊은 후 그를 바닥에 눕힌다. 청진기를 꺼낸 미수는 남자가 아직 숨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미수의 대응방법이 최선인가? 목을 맨 이를 발견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응급처치해야 하는가?

좋아요! 대상이 성인인지 영아(0~24개월)인지, 심폐소생술(CPR)전문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즉 중 미수는 의료인으로서 CPR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㉔ CPR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㉔

- ① 맥박(경동맥·대퇴부)체크, 호흡체크
  - ② 맥박이 약하게라도 있으면 CPR 하지 않고, 맥박·호흡이 없으면 CPR 실시하고 제세동기 병행
- ※영아(0~24개월)의 경우 : 약한 맥박이라도 CPR

### ㉔ CPR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일반인) ㉔

- ① 의식확인, 호흡체크
- ② 반응이 없다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주변에 도움(신고·제세동기 확보)을 요청한다.

영화 속 미수와 강일은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위기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한 걸음 성장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 또한 확인하게 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두 손 모아 바란다. 우리에게도 소방대원들에게도 오늘이 ‘사람 구하기 좋은 날’이 아니라, 그저 ‘사람 살기 좋은 날’이길.

## 불타는 금요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글\_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장 장낙근  
사진\_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제공



인천공단소방서에는 매주 금요일이면 어린이들의 축제가 열린다. 말로만 듣던 소화기, 소방차 등을 만져보고 체험하는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 연수구에서는 물론이고, 남구 부평구, 멀리서는 경기도 시흥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다.

가장 먼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요즘엔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는 것은 다섯 살만 되어도 기본적으로 아는 듯하다. 25명~30명의 아이들이 단체로 코와 입을 손이나 소매로 막고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볼 때엔 교육의 즐거움보다 아이들이 참 귀엽다는 생각이 앞선다. 동행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 귀여운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에 바쁜 모양새다.

공단소방서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기가 많은 만화캐릭터들이 슈퍼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





는데,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아빠의 미소가 지어진다.

물소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시작하면 아이들의 즐거움은 최대가 된다. 아이들은 어린이소방대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아 화재 방향으로 향한 뒤 물을 발사하는 훈련을 받는다. 차례차례 물소화기를 발사하다 보면 흡사 놀이터에서 물총 싸움을 하듯 화재와의 싸움이 벌어진다. 불 모양의 모형물을 누가 정확하게 맞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서로 시합이 시작된다.

대피훈련과 소화기 체험을 모두 무사히 마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방차를 구경한다. 소방서에서 제일 키가 큰 사다리차와 덩치가 큰 물탱크차. 방귀

를 잘 쀈는 배연차, 눈이 큰 조명차, 불을 끄는 펌프차, 소방대장님이 타는 지휘차 등의 설명을 듣고, 제일 좋아하는 구급차 내부도 구경한다. 덩치가 제법 큰 친구들은 실제 소방관의 옷과 모자를 써보기도 하고, 일부 겁 없는 친구는 소방차에 올라가서 용감히 핸들을 잡아보기도 한다.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방체험교육을 하고 헤어지기 전, 소화기가 없는 집의 아이는 오늘 엄마·아빠와 소화기를 구매하여 집에 비치하기로 약속을 한다. 오늘도 인천공단소방서를 다녀간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천119스토리 여름호에 소개 될 '렛츠소방'의 '일일소방관'으로서 현장을 체험할 주인공을 찾습니다. 소방관을 꿈꾸는 학생들, 소방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문의 [nick119@korea.kr](mailto:nick119@korea.kr)

## 떡과 편지에 담은

# 감사의 마음

“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요.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이** 인천미추홀소방서 119구급대 신기1팀

소방장 김지나, 홍인표 | 소방교 김관영, 한정훈 | 소방사 윤병준, 정호재

글\_김지현



올해 초, 인천 미추홀소방서 119구급대 신기1팀 앞으로 먹음직스러운 떡과 분홍색의 편지가 도착했다. ‘소방대원님들, 감사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편지는 마지막 문장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편지를 쓴 이는 지난 1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로 응급 구조된 김민정씨의 시어머니다.

“우리 남편이 떡을 해서 가야 한다고 계속 말했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떡만 해서 가는 것 보단 꼭 이 사연을 써야 하겠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머니, 편지 쓰세요’ 하고 손주들도 ‘할머니! 편지 써’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너무나 감사한 분한테도 그렇고 남에게 속상한 걸 표현할 때도 편지를 쓰는 거다, 하고 가르쳤더니 애들이 ‘그럼 할머니, 우리들도 편지 쓸래요.’ 해서 밑에다 애들도 썼던 거예요.”

분홍색의 편지 가장 아래엔 아이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꼬물꼬물한 글씨, ‘감사합니다’도 함께였다. 쓰러졌었던 그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근처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인천미추홀소방서 119구급대 신기 1팀 대원들의 발 빠른 대처 덕분이다. 민정 씨네 가족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했다니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신기 1팀 대원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

**Q.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파트 단지 내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나갔는데, 사실 ‘심정지’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로 출동한 거였어요. 처음엔 구급차 한 대가 가서 가자마자 확인했는데 쓰러진 여성 분이 심정지 상태였고, 보통 심정지 상태면 구급 차량이 두 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론 두 대가 같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다행히 현장에서 심장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신 케이스였죠.”

.....

**Q. 민간인들은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일단 환자가 쓰러지면 신고는 다들 잘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환자 상태확인을 요청하면 ‘겁나서 못 만지겠다’, ‘무섭다’고 보통은 신고만 하세요. 사실

“

건강하게  
아이들 곁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신고 해주시는 것만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자리에 계시던 분이 쓰러진 분의 상태를 확인해주시면 상황 요원이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

#### Q.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심정지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 평소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면 좋고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고 곧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간단히 배워두는 것도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대원님들 덕분에  
저희 머느리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



.....

#### Q.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등을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서,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셔서 배우시는 방법도 있어요.”

.....

#### Q. 끝으로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일이(쓰러져계시던 분을 구조한) 기사화되고 이슈가 될 만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무사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구조활동을 마쳤을 때 저희에게 정말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나중에 따로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가 부러진 것 같다, 뭐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 일은 저희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그분이 저희에게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신 것 자체가 특별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시민분들이 고맙다고 말씀해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소방관이 더는 불쌍하거나 힘든 직업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일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김지나 소방장은 분홍색의 편지를 들고 웃어 보였다. 그의 말을 끝으로 신기 1팀 대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한 당부의 인사를 잊지 않고 전했다. 그들이 말한 ‘자랑스러운 소방관’, 그 이상의 몫을 해내고 있는 미추홀소방서 119구급대 신기 1팀.

그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그들의 값진 행보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 류케이온 시사토론 동아리

### 공은민 올림

## 소방관분들에게

글\_공은민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신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공은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시사토론 동아리 ‘류케이온’은 꾸준히 시사 문제로 이슈가 되는 소방관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술 동아리인 ‘미대로 가는 길’과 연합하여 “꺼져가는 마음의 불씨, 살려보아요.”라는 주제로 ‘소방관 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소방관분들이 일하시는 환경, 처우 등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교내 학생들에게 시사 문제를 발표하는 활동에서 ‘더 이상 떠나보내면 안 될 그대-대한민국에서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호수공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부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관에 관한 간단한 O/X 퀴즈, 소방관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황당한 소방관 출동 사례, 부당한 처우 등을 알게 되었고, 소방관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뜨거운 불길 속에서 손을 건네주셔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셔서, 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분들로 인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히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언제나 시민들의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 존재를 당연히 여기게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 당신들의 소중함을 잊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천 서부 소방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계양소방서에서의 뜨거운 아르바이트

글\_계양소방서 아르바이트생 맹현영

2018년 뜨거운 여름, 나는 계양소방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보름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방관들의 다양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달려가던 현장 활동 소방관분들의 모습이다. 쉬지 않고 올리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출동 명령에 식사마저 다 하지 못하고 달려가던 대원분들. 뜨거운 피약벌이 내리쬐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비질비질 나던 날, 주택용 소방시설을 나눠주기 위해 몇 번이고 무거운 소화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소방관분들도 보았다. 민원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복되는 전화와 안내, 일정조정, 방문 민원인 상대 등 현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과는 또 다른 업무로 열심히 그들의 모습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동료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 동료의 생일을 챙겨주는 모습,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즐거워하던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던 그들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 정형화된 소방관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상에서 보던 삼촌,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재난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 소방서 내부의 행정 인력 또한 많이 부족해 보였다.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계약직들이 존재하겠지만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자리에서 서류 정리나 자료조사 등 단순 업무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나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나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고 여겼던 소방관분들이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늘 힘쓰고 계시단 걸 알고 존경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 옆에서 이를 가깝게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경험이 뜻깊고 소중하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도울 수 없지만 내 주변이나마 평상시 안전을 위한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 2019 지역행사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장' 안내

2019년도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119소방안전체험장 안내

##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119소방안전체험장 | 4월



- 연계행사명 :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 일시 : 2019년 4월 20일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광장(남동구 무네미로 238)
- 주대상 : 어린이
- 참가인원 : 2000여명
- 소개 : 매년 1만여명이 참여하는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행사와 연계한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 초기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구조대 체험, 종이접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119소방안전체험장 | 5월



- 연계행사명 : 어린이날 기념행사
- 일시 : 2019년 5월 5일
- 장소 :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일원(남구 매소홀로 618)
- 주대상 : 어린이, 가족
- 참가인원 : 20,000여명
- 소개 : 인천광역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지진체험, 소·소·심 등 생활 속 안전상식 향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과학대전 '과학으로 만나는 소방안전' | 11월



- 연계행사명 : 인천과학대전
- 일시 : 2019년 11월 중
- 장소 : 송도 컨벤시아 1층 전시장
- 주대상 : 중고교생
- 참가인원 : 15,000여명
- 소개 : 10만여명의 인파가 방문하는 인천과학대전과 연계운영하여 119 안전체험장 운영. 실생활과 밀접한 과학실험, 실물 구조장비 시연등 진행. 





# 칭찬합시다

## 1 송도소방서 이주원 소방장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경희  
소방관 : 송도소방서 소방장 이주원

아이들은 소방차, 경찰차를 좋아합니다. 견학 가는 길에 소방차다! 외치면 친구들은 어디? 어디? 하며 창밖을 쳐다보곤 합니다. 소방차를 처음 발견한 친구 어개가 으쓱해지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에 소방관 아저씨가 오셨어요. 송도 이주원 소방장 아저씨가 멋진 소방관 옷을 입고 직업 활동에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아하는 소방관 아저씨를 직접 만난 아이들의 놀란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어’ 그림책도 읽어주고 소방관이 하는 일,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비롯하여 소방안전교육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보다 소방관 아저씨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셨을 때 아이들의 관심도나 집중도가 높아져 몇 배의 교육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영아들도 있어 현장체험견학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흔쾌히 방문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신 이주원 소방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 생명의 은인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 익명  
소방관 : 서부119구급대 소방장 조용운

저는 에어컨 보조 기사로 일하고 있는 26살 성인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고객님의 집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을 앓고 있던 저는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한 분이 제게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저는 안전하게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쓰러졌었던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같이 현장에서 일하던 형이 ‘그분만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찾아 안정이 되었을 때 그분께 전화를 드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살려주신 분은 소방관님이셨는데 마침 에어컨 설치하러 간 곳이 그분이 계신 집이었습니다. 365일 국민을 위해 몸을 헌신하시며 지켜주시는 소방관님 전부 다 감사하지만 저를 살려주신 서부소방서 조용운님께 정말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 3 송도소방서 대원분들 칭찬합니다

작성자 : 연선희  
소방관 : 송도소방서 대원분들

10월 7일 10시경 일이 있어 박문여고에 갔다가 승강기가 멈췄는데 송도소방서 구조 대원분들이 오셔서 빠르게 대처해주셨습니다. 워낙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주위 분들에게 얘기하니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늦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거 같아 남깁니다. 송도소방서 대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우리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인포그래픽\_정유희  
통계 참고자료 출처\_소방청

###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와 **감지기**

(소방시설법 제88조)



### | 연평균 화재 발생건수·사망자 수 평균 | 통계 참고자료 출처\_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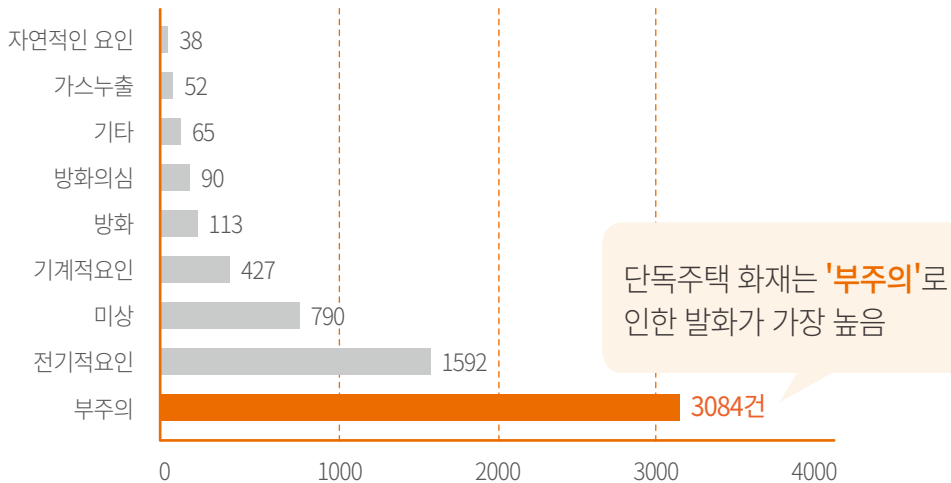
※ 최근 7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3%**인 반면,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무려 47.8%**

주택화재 사망자는  
대부분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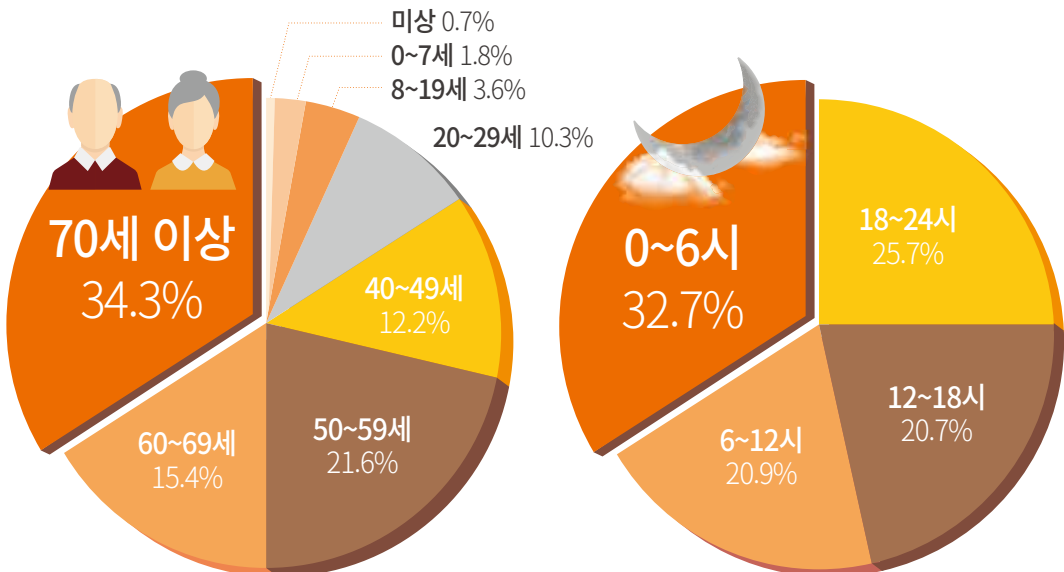
## | 최근 1년간 단독주택 화재 발화요인별 발생건수 |

통계 참고자료 출처\_소방청



## | 최근 7년간 연령·시간대별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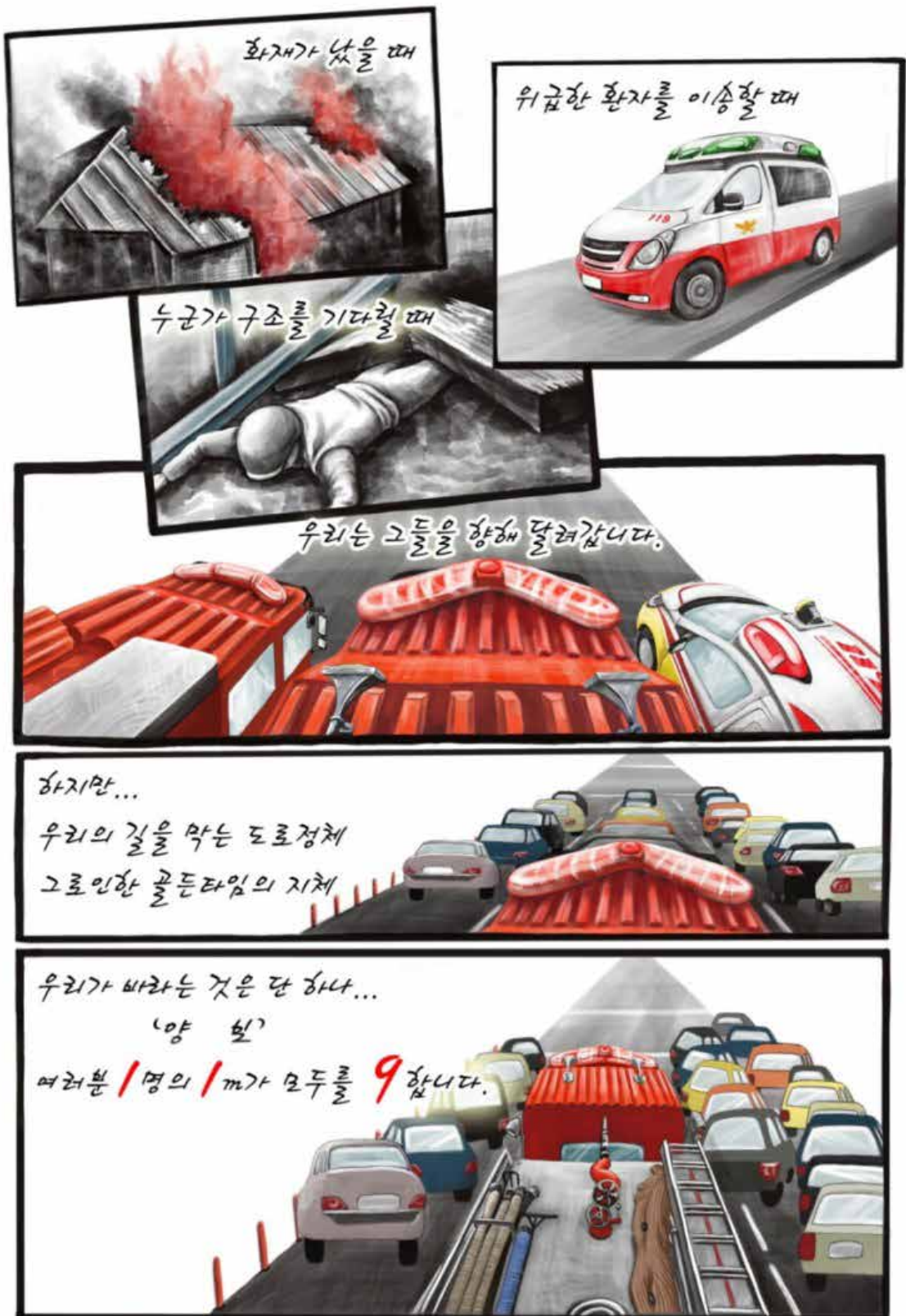
통계 참고자료 출처\_소방청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시행결과 화재 사망자 1.9% 감소

※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간행물 E-book 열람 방법 [예시: 리더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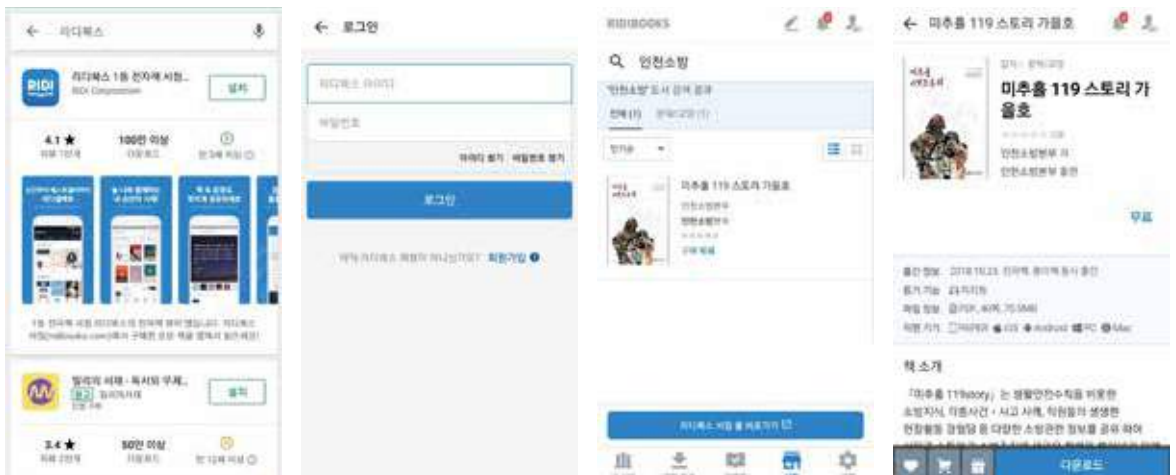
## 1. 앱 설치

-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이북'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리더북스, 교보문고, 알라딘, 구글 플레이북스, yes24, 반디앤루니스 등

## 2. 도서 검색 후 다운로드 [예시: 리더북스]

- Play스토어에서 리더북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로그인
- 앱 화면 아래쪽 '서점' 탭 선택 후 위쪽 도서 검색창에 '인천소방' 검색
  - 무료 다운로드 후 '내서재' 탭에서 열람 가능
  - 와이파이 이용 다운로드 권장(이북 용량 약 70MB)

## ※ 앱 설치 및 다운로드 화면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아래쪽 '서점' 선택 후 위쪽 검색창 '인천소방' 검색 ⇒ 다운로드 후 '내서재' 열람

## 인천소방본부 공식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19incheon>

미추홀119스토리의 모든 내용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전자책 유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진 인천소방본부홈페이지 <http://new119.incheon.go.kr>
- 전자책(ebook) 리더북스, 교보문고, 알라딘, 구글 플레이북스, yes24, 반디앤루니스

# 내가 아는 소방관

오래전부터 보아온 소방관이 있다  
그는 소방관이었기에 자주 볼 수 없었다  
그가 돌아올 때면 난 항상 그의 품에 안겼다  
그와 있는 시간이 나는 가장 행복했다

내가 아는 소방관이 한명있다  
그 때문에 내가 아는 분이 자주 울었다  
내가 배운 소방관은 누군가를 구한다고 했다  
내가 아는 소방관은 누군가를 자주 울렸다

나는 소방관 한 분을 알고 있다  
이제와 보니 그는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나도 힘들었다 그렇기에 서로 더욱 힘들었다  
그는 모든걸 놓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소방관을 한명 알고 있다  
그는 소방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왔기에  
그는 그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다해냈다  
그를 보는 나는 많은걸 느꼈다

소방관 한명이 있다  
아니 이제는 소방관이 두명이 되었다  
한명은 내가 아는 소방관이요 한명은 나다  
이제야 그의 지난 시간들이 이해가 된다

나는 소방관이다  
내가 아는 소방관이 겪어온 그 시절 소방을  
가슴에 새기며  
나 또한 아는 소방관 한명이 되어진다



글 · 그림 계양소방서 소방사 이병화

저의 아버지이신 계양소방서 소방령 이순모님께 이 시를 바칩니다.